

〈참고자료〉

제네시스 GV70, 북미 시장에서 ‘최고의 프리미엄 SUV’로 찬사 받아

- 상품성 강화한 GV70 부분변경 모델, 미국·캐나다 유력 자동차 매체로부터 뜨거운 반응
... 부분변경 거치며 주행 성능과 정숙성 강화하고 실내 공간 완성도 높여 상품 경쟁력 향상
- 주요 매체 호평 이어지며 북미 시장에서 존재감 높여 ...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프리미엄 SUV”
- GV70, 북미 시장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제네시스의 베스트셀링 모델
... 지난해 제네시스 미국 전체 판매량의 35%, 캐나다 전체 판매량의 57% 차지하며 판매량 견인

제네시스는 GV70 부분변경 모델(이하 GV70)이 북미 유력 자동차 매체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최고 수준의 상품성을 입증했다고 29일(목) 밝혔다.

제네시스는 최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GV70에 적용된 핵심 기술 발표와 시승회가 결합된 ‘GV70 Media First Drive(GV70 미디어 퍼스트 드라이브)’를 진행하며 GV70의 우수한 상품성과 기술력을 강조했다.

행사에는 세계 올해의 차(WCOTY)/북미 올해의 차(NACTOY) 심사위원을 비롯해 모터트렌드(MotorTrend), 카앤드라이버(Car and Driver), 에드먼즈(Edmunds), 오토모티브 뉴스(Automotive News), 켈리블루북(Kelley Blue Book) 등 북미 주요 60여 개 매체가 참석하며 GV70에 대한 북미 시장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GV70은 부분변경을 거치며 더욱 우수해진 주행 성능과 정숙성, 완성도 높은 실내 공간 등을 갖춰 북미 주요 매체로부터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프리미엄 SUV로서 고급스러움과 성능 측면에서 능가할 차가 없다”는 찬사를 받았다.

GV70는 전륜 서스펜션에 적용됐던 하이드로 부싱¹을 후륜 서스펜션에도 추가해 승차감을 개선하고, 가변 기어비(VGR) 스티어링 시스템을 적용해 보다 안정적인 차량 거동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고속도로 주행 보조(HDA) 기능 사용 중 차량 움직임을 더욱 정밀하게 제어해 주행 안정감을 향상시키는 고속도로 바디 모션 제어(Highway Body motion Control, HBC) 등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적용돼 전반적인 주행 성능이 더욱 강화됐다.

미국 자동차 전문지 <카앤드라이버>는 “GV70는 여전히 럭셔리와 스포츠의 경계를 능숙하게 넘나 든다”며 “승차감이 울퉁불퉁한 노면에서 더욱 개선됐고 이전보다 날카로운 조향이 가능해 코너링도 더 정교해졌다”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대표 자동차 전문지인 <모터트렌드>도 GV70의 주행 성능에 대해 호평하며 “핸들링에는 전혀 타협이 없으며 승차감은 이전보다 확실히 더 좋아졌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자동차 평가 플랫폼인 <에드먼즈>, 자동차 전문 플랫폼 <카즈닷컴(Cars.com)>도 GV70의 주행 성능에 대해 호평했다. <에드먼즈>는 “GV70의 부드럽고 자신감 넘치는 주행 성능과 안정적인 접지력은 운전자에게 만족스러운 주행 경험을 선사한다”고 말했으며, <카즈닷컴>은 “날카롭고 직관적인 핸들링이 스포츠 세단 수준의 운전 재미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GV70는 노면 소음을 실시간으로 측정 및 분석하고 반대 위상의 소리를 스피커로 송출해 고객이 느끼는 소음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능동형 소음 제어(Active Noise

¹ 서스펜션 내 부품들을 유연하게 연결해 충격을 흡수하고 진동을 완화해 주는 부품으로 일반적인 고무 재질의 부싱과 달리 내부에 액체가 있어 노면 진동을 더욱 잘 흡수할 수 있음

Control-Road, ANC-R)가 적용돼 정숙성이 더욱 향상된 점도 이목을 끌었다.

캐나다의 자동차 미디어 플랫폼 <드라이빙(Driving.ca)>은 “텍사스 도로는 고속 주행 시 유난히 시끄러운데, GV70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고 부드럽다”며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차분한 실내에 감탄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자동차 전문 미디어인 <잘롭닉(Jalopnik)>은 뛰어난 정숙성의 비결로 철저한 방음 대책과 능동형 소음 제어를 언급하면서 “외부 소음으로부터 탑승자를 완벽하게 차단한다”고 말했다.

GV70의 실내 공간은 차별화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소재와 마감을 바탕으로 27인치 통합형 와이드 디스플레이,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과 같은 다양한 첨단 편의 사양이 탑재돼 큰 호응을 얻었다.

미국의 대표적인 주간 뉴스 매거진인 <U.S. 뉴스 & 월드 리포트(U.S. News & World Report)>는 “패널의 마감과 모던한 대시보드 디자인, 센터 콘솔의 카본 파이버 트림까지 정말 환상적”이라며 “동급의 경쟁 차종을 부끄럽게 만들 정도”라고 극찬했다.

또한 <잘롭닉>은 “GV70의 실내는 여전히 시간을 보내기에 아주 좋은 공간”이라며 “차별화된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한 제네시스는 노력은 성공적”이라고 평했다.

미국의 자동차 전문 온라인 미디어인 <오토가이드(AutoGuide)>는 “새로운 와이드 디스플레이는 색다른 사용자 경험을 선사한다”며 “제네시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직관적인 제어 방식 덕분에 다루기 편하다”고 평가했고, <모터트렌드>도 “최신 제네시스 모델과 마찬가지로 직관적인 메뉴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스티어링 휠에 적용된 직접식 그립 감지 시스템(HOD, Hands On Detection)과 강화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더욱 넓어진 컵홀더와 변경된 콘솔 구조 등 세세한 개선점들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GV70는 북미 시장 출시 이후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제네시스의 베스트셀링 모델로 지난해 제네시스 미국 전체 판매량의 35%, 캐나다 전체 판매량 중 57%를 차지하며 북미 시장에서 제네시스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있다.

또한 GV70는 우수한 상품성을 바탕으로 ▲<카앤드라이버> ‘2025 베스트 10 트럭 & SUV’ ▲<카앤드라이버> 2025 에디터스 초이스 어워즈 ‘컴팩트 럭셔리 SUV’ ▲호주 <드라이브> 2025 올해의 차 ‘최고의 중형 SUV(8만 호주 달러 이하)’ ▲캐나다 <오토트레이더> 2024 오토트레이더 카 어워드 ‘최고의 컴팩트 럭셔리 SUV’ 부문에 선정되고, 미국 IIHS 충돌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Top Safety Pick+)’를 획득하는 등 글로벌 자동차 어워즈에서 수상을 이어가고 있다.

HMG 저널:

제네시스 GV70, 첨단 주행 기술과 완벽한 주행 품질로 북미 기자단의 마음을 사로잡다 (<https://www.hyundai.co.kr/story/CONT0000000000177642>)

<사진설명> 제네시스 GV70, 북미 시장에서 ‘최고의 프리미엄 SUV’로 찬사 받아

제네시스는 GV70 부분변경 모델이 북미 유력 자동차 매체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최고 수준의 상품성을 입증했다고 29일(목) 밝혔다.

(사진 1~3) 제네시스 GV70